

요양원 입소노인의 일상생활 적응경험

정재연¹ · 김영경²

부산의료원 간호사¹, 부산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교수²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Adaptation Experience on Nursing Home Admission among Senior Patients

Jeong, Jae Yeon¹ · Kim, Yeong Kyeong²

¹Graduate School, College of Nursing,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²Professor, College of Nursing,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Purpose: This study aimed to explore the constituents and structure of adaptation experiences in their everyday life among senior patients of a nursing home in order to provide nursing intervention data for the satisfaction and the improvement of life of senior patients by appreciating the nature of their adaptational experience. **Methods:** The participants were five female and one male senior patients who were 65-years old or older and admitted at a nursing home in a metropolitan city. The interview data were analyzed by the Giorgi's phenomenological analysis method. **Results:** As the results of analysis, the following three constituents have been found out: retrospective focus based on the meaning of admission, expanding a view and facing up to the reality, reconstructing views about the meaning of life and the world. **Conclusion:** With the increasing number of senior in facilities, nurses not only play a key role in caring for seniors but also in managing their maladaptation. Thus, it is considered that the results obtained from the this study provide valuable information for both the senior patients and their families as well as for the nurses, by presenting the data about senior patients' adaptational experiences of nursing home admission.

Key Words : Senior, Adaptation, Phenomenology, Everyday lives, Nursing home

1. 서 론

우리사회의 인구 노령화는 2000년에 노인인구 7.2%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이래 불과 18년 만에 고령사회를 맞이하게 될 정도로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노인의 91.2%가 한 가지 이상의 만성퇴행성 질환을 지니고 있어 노인의 건강관리는 의료계뿐 아니라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6). 노

인 인구증가와 높은 유병률은 노인의료 이용률과 의료비 역시 급격히 상승시키고 있어, 노인 건강관리를 위한 혁신적인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Park & So, 2004). 그런데 노인의 질병은 복합적이고 퇴행성이어서 완치에 어려움이 있고, 약 34%의 노인이 노화와 질병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를 고려할 때 고도의 기술집약적인 치료 중심의 병원체제보다는 장기적인 간호서비스를 통해서 건강과 일상생활

Corresponding address: Kim, Yeong Kyeong, College of Nursing,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4-1 Bugog 3-dong, Geumjeong-gu, Busan 609-323, Korea. Tel: 82-51-510-0723, Fax: 82-51-510-0747, E-mail: ykkim@cup.ac.kr

투고일 2006년 11월 9일 심사회의일 2006년 11월 13일 심사완료일 2007년 3월 28일

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가 더 효율적이다(Choi, 2002).

노인시설 중에서 요양원은 치료중심의 병원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고, 양로원 등의 사회복지 시설보다는 간호사를 통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장기간의 가료가 필요한 노인들에게 적합한 의료복지통합 시설로 간주되고 있다(Yim & Park, 2003).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형태의 요양원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은 2003년에는 59만 명, 2020년에는 143만 명으로 추산된다(Korea Institute of Health and Social Welfare, 2001). 이렇듯 요양원 시설 수요의 증가는 시설의 양적 팽창을 가져올 것이고, 이어서 요양시설에서의 안전하고 안락한 환경 확보와 양질의 건강관리 서비스 보장 문제가 대두될 것이다.

양질의 간호 서비스는 수혜자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상태와 요구, 그리고 그들의 역할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로부터 시작된다(Lee, 2000). 노인의 시설입소는 생활 위기에 해당된다. 친숙한 생활의 근거지를 떠나 주거지를 이동하여 새로운 물리적 사회적 환경에 처할 때 일상생활의 리듬이 붕괴되어, 경우에 따라 사망률의 증가 건강악화, 의기소침, 우울 등의 심각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Seo & Rhee, 1996).

오늘날 요양원에 입소하게 되는 노인들은 부모자녀의 친밀한 접촉, 자녀의 노부모 부양을 절대적인 가치로 하는 유교적인 전통 문화에 익숙한 세대이다. 이 세대의 노인들은 나이가 들수록 건강상태와 무관하게 자녀와의 동거, 특히 아들과의 동거를 원하고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해왔고 특히 건강이 악화되는 상황에서는 요양원과 같은 시설보다는 자녀와의 동거를 희망한다(Lee, 2000). 아들과 함께 사는 것은 노인자신의 편익 외에도 아들의 효행과 부양능력을 사회에 입증하는 전시효과로 큰 의의를 부여해왔다(Cho, 2005). 노인에게 있어 노인전용 주거시설에서의 생활은 곧 자녀와의 별거라는 중요한 결단을 필요로 한다. 자녀와 떨어져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것은 단순히 거주환경의 변경이외에도 노인과 가족의 삶의 가치를 상실하고 사회적인 규칙을 위반하는 의미를 지니게 된다. 그러므로 노인의 시설 입소는 노인 편에서나 가족의 입장에서 쉽게 수용하기 어려운 형편

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요양시설에서 아무리 안전하고 안락한 외적환경을 제공한다고 해도 전통적인 사고를 지닌 노인이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다거나 부모에 대한 도리를 다하지 못했다는 등의 입소와 관련된 부정적인 사고를 빠르게 전환시키지 못한다면 한동안 적응을 하지 못한 채 심각한 충격과 갈등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부적응은 노인뿐 아니라 노인의 가족에게도 죄의식과 부담을 줄 수 있으며, 노인시설의 돌봄 제공자에게도 심각한 도전이 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문제들이 시급히 파악되고 그에 따른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의 시설수용과 관련하여 많은 양적, 질적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Lee, 2000). 기존의 연구들이 노인의 입소생활 이해에 상당부분 기여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인간 경험의 심층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연구자의 이론적 틀에 맞추어 연구대상자의 경험을 탐색하는 양적 접근은 인간 경험의 심층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기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아울러 초점이 없이 인간 경험의 양태를 나열하는 방식의 질적 접근 역시 그 지식을 실무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보다 초점이 분명한 질적 접근이 필요하고, 발견된 지식을 보다 널리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작업 역시 필요하다.

Giorgi(2003, 2004)의 현상학 연구는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접근이다. Giorgi의 현상학 연구는 참여자의 특정 경험에 대한 진술과 기술(natural experience)에서 의미를 지닌 단위들을 구별하여 이 의미 단위들을 학문적 용어로 전환하고 분류하여 경험의 구성요소를 밝혀내고, 합성 과정을 거쳐서 경험에 대한 미시적 이론을 구성하는 작업이다. 이 방법은 참여자의 자연 경험에서 출발하여 경험의 핵심 구성요소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있는 그대로의 경험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고, 나아가서 합성된 구조를 통해서 해당 경험의 특성을 공유하는 보다 넓은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말하자면 본 연구에서 요양원에 입소한 노인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가는 경험의 의미들과 이 의미 단위들에 내재된 본질적 구성요소를 파악할 수 있고, 발견된 요소들을 합성하는 작업을 통해서 얻어진 경험의 구조는 요양원에 입소하는 노인들뿐 아니라 익숙한 일상의

환경에서 낯선 환경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의 적응을 돕는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지식을 산출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Giorgi의 현상학 방법을 적용하여 익숙한 일상의 환경에서 벗어난 노인들이 낯선 요양원 생활에 어떻게 적응하는가를 밝혀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입소 초기 노인의 충격완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근거 지식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노인에게는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빠른 전환을 유도하고 만족감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본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요양원 노인의 입소생활 적응경험의 구성요소는 무엇이며, 이들 경험의 요소들은 어떠한 구조를 지니고 있는가?”의 질문에 답을 찾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Giorgi(2003, 2004)의 다단계 자료수집과 순환적 분석방법을 적용한 기술적 현상학 연구이다.

2. 연구참여자

연구참여자는 일개 광역시에 위치한 유료요양원에 입소한 65세 이상의 남자노인 1명, 여자노인 5명이다. 현상학 연구에서 참여자 선정은 대표성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에 대한 경험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Giorgi, 200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편의표본 추출방식을 적용하여 시설관리자에게 해당 시설에 적응되었다고 판단된 노인을 소개해 주도록 의뢰하였고, 이 중에서 연구참여에 동의하고 대화가 가능하며 기억력 등 인지기능에 장애가 없는 노인을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3.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는 2006년 3월부터 9월까지 참여자와의 심층면담을 통하여 수집하였다. 면담은 참여자의 의

사를 존중하여 참여자가 원하는 장소 즉, 참여자의 침실이나 휴게실에서 이루어 졌다. 면담초기에는 인구학적 자료를 수집하고 일반적인 대화와 건강관리에 대해 대화를 나누면서 참여자와의 신뢰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그런 다음 “요양원 생활이 어떠세요?” “요양원에서 생활하시면서 힘든 점은 없었는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겨나가셨는지요?” 등의 개방적이고 반 구조적인 질문형식을 사용하여 연구주제에 관한 심층면담을 시도하였다. 면담은 의미단위를 나누고, 학문적 용어로 전환하여 구성요소를 파악한 후 각 참여자에게서 이 구성요소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확인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1회 면담에 1시간에서 1시간 30분정도가 소요되었다.

면담을 진행하면서 참여자의 표정이나 어조 등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현장기록 노트에 메모한 후 면담 후에 참여자의 비언어적 표현과 특징, 면담의 주요 내용과 연구자에게 떠오르는 생각이나 질문사항 등을 기록하였다. 연구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면담내용은 모두 녹음하였다. 면담이 끝난 후 당일 녹음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하여 들으면서 참여자가 표현한 언어를 그대로 필사하여 자료집을 작성하였다.

4. 자료분석

수집한 자료는 Giorgi(2003, 2004)의 현상학적 분석방법에 따라 5단계를 거쳐 분석하였다.

- 1) 필사한 자료집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내려가면서 전반적인 느낌과 경험의 윤곽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 2) 참여자의 진술을 단어, 구, 문장, 단락을 각각의 의미를 분석하면서 의미가 전환되는 자료를 찾아 표시하였다. 이 의미 단위는 참여자의 말을 그대로 분석 노트에 의미단위의 목록으로 작성하였다.
- 3) 참여자의 진술에서 찾아낸 의미의 단위를 간호학 언어로 전환하여 진술하였다.
- 4) 찾아낸 의미 단위들을 유사한 것끼리 분류하고 주제범주를 찾고 구성요소를 분류하였다. 경험의 구

성요소 표를 작성하여 각 참여자에게 어떻게 이 구성요소들이 나타나는 지를 점검하였다.

- 5) 전후맥락과 관계성 및 관점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구성요소들을 합성하여 적응 경험의 구조를 구성하였다.

5. 윤리적 고려

참여자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면담 전에 연구의 목적과 연구 방법, 면담 내용의 녹음 등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여 동의를 얻고 이에 대한 내용을 녹음하였다. 악행 금지의 원칙에 따라 참여자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기 위한 조치로 면담 내용은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이며 개인의 사적인 상황은 비밀로 유지하되 익명성을 보장한다는 점과 연구결과가 출판된다는 점, 참여자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면담을 중단할 수 있음을 알렸다. 본 보고서에서 연구에 참여한 참여자와 기관의 정체가 드러날 수 있는 정보는 제시하지 않을 것이다.

III. 연구 결과

1. 입소생활 적응경험의 구성요소

요양원 입소노인이 일상생활에 적응하는 경험의 구성 요소는 ‘입소의 의미에 근거한 선택적인 삶의 발자취에 대한 반추’, ‘현실인식의 증가와 현실세계에의 직시’, ‘인식의 전환과 새로운 삶의 가치 구축’으로 축약할 수 있다(Table 1).

1) 삶의 발자취에 대한 반추

참여자들은 요양원에 입소하면서 입소하기까지의 삶의 발자취를 반추하면서 왜 이러한 현실에 처하게 되었는가를 생각한다. 이 삶에 대한 반추는 현재 처한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반응 역시 다르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요양원 입소에 대하여 생의 목표 좌절, 불편부당한 사회에 의한 저버림, 이타적인 삶에 대한 불공평한 보상, 독립성의 상

Table 1. Constituents of experiences and empirical variation for participants

Constituents	Participant1	Participant2	Participant3	Participant4	Participant5	Participant6
Review of their life based on the meaning of admiss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negative: fail to get life goal as an independent aged painful life feature being p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positive: life saving immediate life threat be reliev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negative: betrayal a reciprocity sacrificial life for the good of country anger to new age and socie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negative: unfair reward altruistic life be empty (futi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negative: loss of freedom and territory life of self control sense of lo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negative: dependency for ill healthy life powerlessness
Increased awareness at present life	care personnel and their hard work	first son as a primary caring support	first daughter in law as a caring supporter	psychological burden of a son	herself as being healthy	concern about fee for admission
Changed their assumption & view and construct new life value	<ul style="list-style-type: none"> positive view on nursing home as a good residential facility satisfied on life without concern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extending a view on nursing home to spiritual life space thanks and gratitude for being cared and solved problem of everyday life 	<ul style="list-style-type: none"> positive view of life and society as a providing reward enjoy life in a paradise 	<ul style="list-style-type: none"> changing a view to other's altruistic life from altruistic self hope for life in a commun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changing a focus to comfort and new relation from loss of freedom happy for new friend and intimate relationships 	<ul style="list-style-type: none"> free from negative feeling for the son and daughter by changing a view on them accustomed convenient life and being with hip

실 등 부정적인 의미를 부여한다. 그러나 절박하고 시급한 생활 문제를 안고 있던 참여자에게 입소는 당면한 생존요구를 해결하는 수단의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의미에 근거하여 참여자들은 과거의 특정 생활 단면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회상한다.

신체건강상태가 악화되어 입소가 불가피했던 참여자에게 요양원 입소는 생존을 보장할 수 없었던 절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으므로 입소 전 절박했던 상황을 떠올리면서 안도한다. 반면에 건강문제로 인하여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여 입소하게 된 참여자라도 입소를 경제적으로나 생활환경면에서의 독립적이고 주도적인 노후의 삶이라는 생의 목표 달성의 실패로 간주하는 경우에는 생활고로 힘들었던 생의 단면을 떠올리며 자기 연민에 빠진다. 요양원의 집단생활로 활동의 자유와 개인 영역과 소유가 상실된 것으로 인식하는 참여자는 비록 몸이 불편하고 물질적으로 풍족하지는 않았더라도 과거 생활에서 누려온 자유와 영역소유권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아쉬워한다. 평생을 남을 돕는 일에 가치를 두고 살아왔던 참여자는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여 결국에는 요양원에 오게 되었다는 생각에 불편부당함과 삶에 대한 허무감을 토로한다. 유사하게 요양원 입소를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참여자는 시대적 요청에 의해 국가와 민족의 존속과 번영이라는 대의를 위해 개인의 이익을 희생해 온 삶에 대하여 보상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분노한다. 각 참여자의 과거 삶에 대한 반추는 다음과 같은 양상으로 나타난다.

참여자1은 독립적인 노후생활을 대비하여 절약하는 삶을 살아왔으나 결국 입소하게 되었다. 이 참여자에게 입소는 노후생활에 대한 목표 성취의 실패이다. 이러한 입소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따라 참여자의 삶에 대한 회상은 물질 자원을 통해서 자신의 영역을 확보하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영위하는 노후생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던 생활에 집중되어 있다. 목표가 좌절되어 본인의 의지와는 달리 의존적인 삶을 살게 되면서 오는 자기 연민과 허탈감을 보인다.

악착같이 내 잘 사는 걸 보여 즐려고 악을 쓰고 낮이고

밤이고 늘그막에 돈도 없고 남편도 없으니 그렇게 한푼 두푼 모아서 점심 한 끼 안 먹는 게 보험비라고 생각하고 돈을 아껴서 모았어. 말을 할려면 목이 메어서 말을 못해.

반면 참여자2는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어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생활과 생존을 유지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자녀에게 요청하여 스스로 입소하였다. 이 참여자에게 요양원은 시급한 생존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자원이고 입소는 당면한 문제해결을 위해 선택한 최선의 수단인 것이다. 자연히 참여자의 삶에 대한 회상은 절박했던 상황에 집중되어 있고, 시급하고 중요한 당면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안도감을 느끼게 된다.

시장 앞에 거기서 7-8년 혼자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들 네 명이 있고 딸이 있고 해도 자식이 나쁜 것보다도 결혼할 때 같이 있어야지 그 뒤에 간다 하는 것은 가서 마음 상하고 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혼자 편안히 지내고 있었습시다. 근데 다리가 아파서 도저히 암만 사람 데려서 이틀에 한 번씩 와도 한 3-5시간 있다가 뭐 좀 사주고 가 버리면 밥을 내가 할 수도 없고 힘이 들고 내가 도저히 안돼서 아들 보고 전화를 했습니다. 나이도 나이지만 너무 내가 힘들어 넘어져서 다리고 안 좋고... 죽지도 안하고 살지도 안하고 더 고생하고 그래서 양로원에 가 있겠다고 큰 아들에게 전화했어요. 아 오니까 안심이 휴-살 것 같아.

물론 이 진술에서 참여자2도 참여자1과 같이 독립적인 삶에 가치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불가능하게 하는 신체문제로 인하여 사는 것 자체가 이 참여자에게는 고통으로 인식되었고, 이 절박한 고통이 입소를 통해 해결되었다는 면이 더 중요하게 인식되어 참여자1과는 달리 입소에 대하여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참여자6 역시 참여자2와 유사하게 건강문제로 인하여 입소하였다. 참여자6의 경우 질병으로 인하여 낙상이나 합병증으로 악화되는 것을 염려하여 입소를 결정하게 되었다. 이 참여자에게도 입소는 몸 상태를 유지하는 적정의 자원이자 수단인 것이다.

집에 있으면서 내 몸이 당뇨가 있어가지고 살을 쥐면 부
서지고 다리에도 돌이 들어가 있고 네 군데나 그래. 밤에
일어나서 이 발이 기울어져 자빠지면서 그래 가지고 아무
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참여자3과 참여자4에게 입소는 희생적이고 이타적인
삶에 대한 불편부당한 보상이라고 인식된다. 참여자3은
한국전쟁에 참여하여 나라를 위해 자신의 젊음을 바쳤
고, 국가의 경제성장과 가족의 생계를 위해 자신의 안위
를 희생하고 살아 온 것에 가치를 두고 있다. 참여자4는
빈곤하고 육체적으로 힘든 생활을 하면서도 친척과 이
웃을 배려하고 돕는데 가치를 두고 살아왔다. 그러나 이
러한 대의를 위한 희생이 합당하게 보상받지 못하고 남
은 것은 만신창이 된 몸 밖에 없는 고통스런 삶이라는
것에 대해 분노감을 토로한다.

요즘 젊은 사람들 이게 공산국가인지 자유민주주의 국가
인지 어느 국가인지 분간을 못하겠어요. 지금 젊은 사람들
이 나라를 위하는 생각이 없습니다. 나라에 자긍심이라는
게 참 희박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다른 사람들한
테는 얘기를 못합니다. 젊은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케케묵
은 얘기를 하나요...비가 올려고 하면은 많이 아픕니다. 비
가 올려고 하면 팔도 쭈시고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온 만신
이 아픕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옵니다. 상처가
난 것도 아니고 이런 거는 약을 모르니까 이래 아픈 거는
치료가 안 되잖아요. 진통제 하나 맞고 그러면 고통을 좀
면하지 만은. 나는 눈물을 수백 번을 흘렸습니다. *남자답지
못하지요.*

진술과 같이 국가의 이념을 지키기 위해 개인을 기꺼
이 헌신하는 사회의 가치가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는
세대, 이를 가능케 했던 남성의 강인성이 국가를 위한
희생의 산물로 남게 된 신체의 고통 앞에서 무너진 현실
이 참여자에게 또 다른 고통을 안겨준다. 참여자에게 입
소는 대아적인 삶의 가치가 위반되는, 사회와 남성으로서
의 자아상이 무너지는 현실을 인식시킨 계기가 되었다.

참여자5는 자기혼자만의 영역에서 살았던 삶을 회상
하며 자유와 소유의 상실을 느낀다. 이 참여자는 자녀들

이 모두 외국으로 이민을 가고 혼자서 생활해 왔다. 참
여자에게 입소는 비록 춥고 불편하고 외롭기는 해도 독
립적인 생활을 영위해 왔던 자신만의 공간에서 자신의
영역이 허용되지 않는 공동 공간으로의 이동이고, 따라
서 영역 소유권의 상실이자 생활의 자유의 상실이다. 이
러한 비일상적이고 친숙하지 않은 환경으로의 이동은
개인의 영역과 통제받지 않은 자유로운 삶을 그리워하
게 만든다.

어떤 때는 누워있으면 집 생각이 많이 나지 예.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 열흘 동안 노다지 생각이 나
서 못 있겠는데.

이상에서 입소 초기에 일상과는 다른 요양원 환경에
서 참여자들은 현재상황과 과거의 상황을 비교하고 대
조하면서 자기의 해석에 따라 선택적으로 반응하는 정
서기제를 사용한다. 따라서 참여자들의 회상의 초점은 상
이하고 그 반응 역시 다양하다.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모
든 참여자가 입소에 대하여 자신이 형성한 의미를 바탕
으로 과거를 회상하면서 현 상황에 반응한다는 것이다.

2) 현실 인식의 증가

참여자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요양원 환경에 익숙해지
고 시급했던 건강문제가 완화되면서 선택적 과거 회상
에서 벗어나 현실로 시선을 전환한다. 문제를 일으키는
몸의 부분과 생존자체에 머물러 있던 시선이 좁게는 전
반적인 신체건강과 향상된 일상생활 능력, 나아가서 현
재 자신의 생활에 관련되어 있는 주변 사람들로 확대된
다. 과거 시점에 머물러 있던 참여자들의 시선이 입소비
용 등의 현실적인 문제로 돌려진다. 시선이 과거에서 현
실의 문제로 변경 되면서 편안함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
지게 되는 한편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과 현실문제에
대한 걱정 역시 생겨난다.

현실 직시와 현실 인식의 확대는 인식의 전환과 자기
반성,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서보는 방식을 통해서 이루
어진다. 각 참여자들에게 이 과정은 그들이 처한 상황과
입소에 대하여 부여했던 의미, 평소의 가족관계 등에 따
라 다르게 나타난다.

참여자1의 경우 혼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신체기능에 머물러 있었던 시선이 자신을 돌보아 주고 있는 직원들에게 향한다. 이 참여자는 요양원 직원의 입장에서 그들의 고통을 이해한다.

참. 젊은 사람들 고생시키고 또 오줌 받아내고 그래도 한번 성 안내고 씻겨주고 옷 벗겨주고 엉덩이 씻겨주고 그래요. 난 아들보다 낫고 딸보다 낫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나 싶어. 머느리한테 있으면 머느리 아무리 해줘도 눈치 보인다고 미안하고 응. 옷에다가 오줌을 싸고 하니 그걸 불러하겠나?

참여자1에게 입소는 남에게 의존하지 않는 노후생활에 대한 생의 목표가 신체건강문제로 인하여 좌절된 사건이었다. 자녀가 없는 이 참여자에게 자녀를 이상의 일을 대신해 주는 직원들의 노고가 가장 중요한 현실로 인식된 것이다. 그러나 참여자가 자신을 돌보는 직원을 긍정적으로 인정한 것은 단순히 기본적인 신체간호활동에 대한 것이 아니다. 진술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우선은 참여자가 젊은 사람인 직원의 입장에서 그들의 일을 바라볼 수 있는 인식의 전환이 있었고, 이를 통해서 이 일이 젊은 사람으로서는 인내하기 힘든 일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혈연관계의 자녀들이라 해도 이겨내지 못할 힘든 일을 꾸준히 잘 인내하는 젊은이의 사람됨을 인정한 것이다. 참여자의 신체관리 문제가 해결되면서 시야가 확대되어 주변의 환경이나 사람이 시야권내에 들어오고, 또한 상대방의 입장에 서보는 여유가 생긴 것이다. 삶의 모든 문제를 혼자 해결했고, 이를 생의 목표로 삼아왔던 참여자에게 자녀를 대신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현실이 인식세계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

직계 자손이 없는 참여자1과는 달리 대부분 참여자들의 인식 세계에는 요양원을 자주 방문하고 비용을 부담하면서 자신과 관계를 이어가는 자녀들이 새삼 중요하게 자리를 잡기 시작한다. 긴박한 건강문제로 인하여 혼자서는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자의로 입소를 결정한 참여자2는 자녀 특히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고 돌보아 주는 큰 아들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스스로 자녀의 생활영역과 자신의

영역을 분리했던 이 참여자에게 입소는 오히려 생활영역에 자녀들이 개입하는 기회가 되었다. 말하자면 입소로 인하여 참여자의 생활영역에 자녀들의 개입이 증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참여자는 자녀의 소중함을 중요하게 인식하게 된 것이다.

참여자3은 부인과 사별하고 혼자서 전쟁 부상의 후유증으로 심한 통증을 안고 살아오다가 질병이 발생하여 입소하게 되었다. 사회로부터 대하적인 삶을 적절히 보상받지 못했다고 생각했던 참여자3은 참여자2와 유사하게 입소로 인하여 자녀들과 더 자주 접촉하게 되었고, 자신을 향한 자녀의 관심을 중요하게 인식하기 시작한다.

다른 자녀들도 면회를 오지만 큰 머느리가 제일 낫지. 큰머느리 이들에 한 번씩 꼭 오고---여기가 나를 맡겨 놓으니 든든하지 뭐. 일주일에 한 번 더 올 때도 있어

희생을 요구했던 시대적 상황과 자신과는 다른 가치관을 지닌 젊은 세대 등 불특정한 세상에 대한 참여자3의 거시적인 시각이 과거생활에서의 관계를 현실에서도 이어주는 가족에게로 축소 전환되면서 분노와 좌절의 부정적인 정서 역시 자녀에 대한 소중함으로 긍정적으로 전환된 것이다. 한편 사회생활에서 주변사람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이타적인 태도에 가치를 두었던 참여자4 역시 자녀들에게 시선을 돌린다. 이 참여자는 “자주 방문하고 입소비용을 부담하는 큰 아들에 대하여 고마운 마음이지만 멀리 살아서 자주 오지 못하고 어머니에 대하여 걱정하는 작은 아들이 더 안타깝다. 내 몸 아픈 것보다”라고 표현한다. 평소의 인간관계에서 타인을 먼저 생각하던 참여자의 생활태도가 현실 생활에도 이어져서, 자녀의 심리적 부담이 자신의 몸의 고통과 자녀의 물리적 접촉보다 더 중요하게 인식된 것이다.

자신의 현실세계 내에 속하는 의미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이상의 참여자들과는 달리, 자신의 영역에서 독립적인 생활에 가치를 두었던 참여자5는 건강상태가 회복되어 비록 보행기에 의존한 상태이기는 해도 요양원 안에서나마 혼자서 이동할 수 있게 된 현실을 중요하게 인식한다.

그러나 자녀와의 관계가 원만하게 이어지지 않는 참

여자6에게는 본인이 해결해야 하는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크게 인식된다.

여기 생활하는 거 괜찮다. 아프니까. 자식 집에 가서 자꾸 얹어지니. 여기가 낫다. 보호자가 있어 낫다. 불편한 것 없다. 다 잘하네. 얹어지고 하면 안아주고 돈이 많이 들어 걱정이다. 자식은 다 잘 살아도 뭐 내 생일 같은 것도 안 챙겨주고 합니다. 나도 뭐... 자식들이 다 잘되어도 돈 달라는 말 생전에 안 합니다. 같이 살자고 하는 소리도 들어본 적도 없고. 자식이 그런 소리는 하지도 않고 내가 살았어도 안 되고...

이상과 같이 참여자들이 입소 초기에 선택적인 과거의 생활 단면에 대한 시각이 현실로 전환되면서 참여자의 인식 세계는 현실생활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가족과 직원으로 경계가 보다 분명해 지고, 또한 가족의 경제적 부담과 근심, 그리고 자신의 경제적 문제 등 보다 구체화 된다. 요양원 입소에 부여한 의미에 따라 삶에 대한 회상이 선택적으로 이루어지듯이, 현실에 대한 인식 역시 입소의 의미와 삶의 가치에 근거하여 그 초점이 결정된다. 예컨대, 입소를 자신만의 영역과 독립적인 삶을 상실로 간주했던 참여자는 기구에 의존하여 걷게 됨으로써 독립적인 생활기능을 회복한 자신의 건강상태를 중요하게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현실 인식은 삶의 목표 좌절과 가치 상실에 의해서 초래되어 막연하고 불특정한 대상을 향하던 분노, 노력에 대한 부당한 대가로 인한 부당함 등의 부정적인 반응이 완화되기도 하나, 현실의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인식은 오히려 실질적인 근심거리를 제공하기도 한다.

3) 인식의 전환과 새로운 생활 가치의 구축

시간이 흐르고 요양원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참여자의 시각이 현실의 사람들과 생활 측면으로 전환 확대되는 한편 자신의 삶과 요양원에 대한 관점이 전환된다. 참여자들에게 요양원은 더 이상 자율성과 개인 영역을 상실하는 곳이 아니며, 단순히 신체건강 악화로 불가능해졌던 기본 일상활동을 해결하는 곳도 아니다. 타인의 도움을 받는 것은 삶의 목표 상실의 아니고, 자식의 부모부

양이 당연한 것도 아니다. 이 과정에서의 인식의 전환은 주로 참여자에 따라 입소의 의미, 가족관계 특히 부모-자녀관, 그리고 삶 전반에 대한 가치의 영역에서 일어난다. 물론 여러 영역에서의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지만 참여자에 따라 특정 영역이 두드러지기도 한다. 이러한 전환은 현실생활에 대한 인식 증가, 참여자의 기능상태 호전, 더 이상 환경 변화를 기대할 수 없음에 대한 인정 등의 결과이기도 하다.

자녀가 없는 참여자1은 노후에 비록 불편하고 힘이 들더라도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살기 위해 절약하고 고생을 이겨내며 살아왔다. 참여자에게 입소는 독립생활에 대한 목표달성이 실패한 것이었다. 그러나 혈연관계의 자녀들보다도 나은 직원들의 보살핌으로 편리한 생활을 하게 됨에 따라 요양원은 좋은 곳이라고 정의한다.

내가 아플 때 낮게 해 줄라고 병원까지 데려다 주는 것이 얼마나 פע를 끼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느껴보이 여기 와서 빨리 깨치는 것이 낫겠데이. 진즉에 왔으면. 여기 오니까 참 편해요. *어르신! 어르신! 무슨 어르신!* 그저 괜찮으려면 한 80살에 오면 좋았을 텐데 (너무 나이 들어 왔다는 의미). 여기 와 있으니까 세상에 아줌마들도 참 좋고.

참여자2도 참여자1과 같이 요양원과 입소에 대한 의미가 변화되었다. 건강이 악화되어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져서 더 이상 사고나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수단으로 요양원을 선택했던 참여자2는 다리의 건강문제가 완화되면서 집에서 생활할 때는 불가능했던 신앙생활을 요양원 내에서 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한다. 참여자2에게 요양원은 단순히 신체적인 기능을 의지하는 곳이 아니라 영적인 생활을 가능케 하는 보다 확대된 기능을 하는 곳이다. 참여자5 역시 요양원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였다. 참여자5에게 요양원 입소는 자신의 영역과 자율성을 상실하는 사건이었다. 이 참여자는 여전히 신체 건강문제가 완화되면 지역사회에서의 생활하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비록 여전히 공동생활이 불편하기는 해도 편리한 생활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말하자면 현실생활의 편리함에 중요

성을 부과하고 자율성과 자기 영역소유권 대한 중요성은 잠시 보류한 것이다.

그런 거보다도 00에 저 혼자 있을라 카이 인간이 그리운 게. 사람이 그리거든. 혼자 있을라하니. 그래도 여와 있어 보니 사람들 구경하거든. 사람이 친하기나 안 친하기나 그 걸 내 버려놓고 사람 보는 게 열매나 커서 여 와 있어요. 여럿이 있으니까 뭐 인제 같이 밥 먹고 시간 보내는 게 수월코 사는 게... 내 마음이 편안해요. 다리가 낡으면 가야지요. 혼자서 생활할 수 있으면 나가야지요.

여러 진술에서 알 수 있듯이 참여자들이 요양원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는 이유는 시급한 건강문제와 기본적인 일상생활이 해결되고, 외로움에서 벗어나 유사한 처지의 노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얻는 동류의식과 외로움의 해결, 각종 프로그램과 직원과의 대화를 통해서 무료함에서 벗어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 제공 등을 들 수 있다.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참여자들이 집단의 어른으로서 존중받는 다는 것이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포매도 “할매가 하소” 하는 것을 못 들어 봤습니다. 참으로 깊은 것을 가르쳐 주니 참으로 감사해요. 참말로 별나라 하늘나라 같아요. 의미로 생각하면 이리 좋은 데가 있는가. 별천지지요. 모든 것이 버릴 것이 없어요.

한편 참여자2와 참여자5는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관점을 전환한다. 신체의존의 수단에서 영적 활동까지 가능한 장소로서의 요양원의 기능에 대한 관점이 확대되었던 참여자2는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관점도 변화되었다.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혼자 살아왔던 이 참여자는 자녀가 자주 방문하고 입소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받아들인다. 부모, 자녀의 독립적인 영역과 부모의 부양을 자녀의 의무가 아니라 부담으로 간주한 이 참여자에게 이제 자녀의 부담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수용된 것이다. 참여자6의 부모-자녀관은 참여자2와는 다른 방향으로 전환된다. 부양의 의무를 만족할 만하게 다하지 못하는 자녀에 대하여 분노하던 참여자6은 자녀

의 부양의무에 대한 기대를 낮추어 자녀의 부양에 만족한다.

남의 자식 같으면 이 만치도 그래 못한다. 그래 내 마음이 안 편하나. 큰 며느리 옥뵈다. 뭐 자식이 부모 보고 싶은 시간이 넘었고, 부모도 자식보고 싶은 시간이 넘었고, 우리는 다 이제 그 뭐, 효자 아니면 이만치 대 줄 수 있나. 돈 암만 많이 굶어도 이만치 대 주는 사람 없다.

참여자2가 부모-자녀의 독립관계에서 의존관계로 전환하여 현실을 수용한 반면, 참여자6은 자녀의 의무에 대한 기대를 낮추어 자녀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현실을 수용하였다.

한편 참여자들의 삶에 대한 가치에 대한 인식의 전환도 있다. 혼자서 살고 있던 참여자3은 요양원에 입소하면서 큰 며느리를 비롯한 자녀들의 방문을 받고, 물리치료 등을 통해서 통증을 성공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에 만족한다. 참여자3에게 요양원 입소는 더 이상 사회로부터 삶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버려진 것이 아니다. 그에게 요양원은 사별한 부인을 대신하여 큰 며느리의 돌봄을 받고 다른 자녀와의 관계도 강화시켜주는 중개소이다. 또한 국가의 존속을 위한 희생의 산물로 얻게 된 신체고통을 관리해 준 요양원은 그의 대아적인 삶을 보상해 주는 곳이다. 참여자에게 사회는 더 이상 불공평하지 않다.

참여자4는 사회생활에서 이타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여겨오고 실천해 왔다고 생각 했고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했으나 요양원에서 생활하면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사람들과 가까운 관계를 형성한 것을 행복해 한다. 이 참여자는 요양원의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과 나이든 사람도 배울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달아 감사한다. 남을 위해 살아온 삶의 측면이 크게 부각되었던 참여자에게, 역으로 요양원의 노인들과 직원이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해 주는 사람들로 인식된 것이다.

심심찮게 한 번씩 노래도 하고 가르쳐주는 것도 많아예. 이런 게 우리 낙인기라. 참 말로 잘해예. 나이든 사람을 어

린 것이 달라고 하는 것 보며 참으로 놀래예. 나이만 먹었지. 참으로 깊은 것 가르쳐주니 참으로 감사해요. 심심하고 거하다고 이틀 만에 한 번씩 목욕시켜 주지요. 낮으로 간식 주고 오락도 가르쳐주고 다 가르쳐준다. 그런 거 하고 이런 거 저런 거 가르쳐 주는 것 보면 의미 있게 가르쳐줍니다.

참여자6 역시 삶에 대한 가치관을 전환한다. 요양원 입소를 독립성의 상실로 인식했던 참여자6은 혼자 살면서 힘들었던 생활과 도움을 받으며 편리하게 살아가는 요양원의 생활을 비교하면서 만족한다. 생활의 가치에 대한 강조를 독립성에서 편리함으로 이동한 것이다.

여기 생활하는 거 괜찮다. 아프니까. 자식 집에 가서 자꾸 얹어지니. 여기가 낫다. 불편한 것 없다. 다 잘 하네.

이처럼 참여자들에게 요양원 입소는 불편하고 힘들어도 도움 없이 살고자 했던 삶의 목표가 좌절된 결과가 아니라,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편리하고 힘들지 않게 살 수 있는 만족스러운 생활환경이다. 직원에게 일상생활을 의존하고 다른 노인들과 생활공간을 공유하는 생활은 자기 영역과 자율성을 상실하는 요인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를 새롭게 형성하는 기회이고 함께하는 삶의 즐거움이다. 또한 요양원은 단순히 신체건강문제로 인하여 할 수 없는 일상활동을 해결하는 곳이 아니라 영적인 활동까지 가능케 하고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을 수 있는 생활세계이다. 부모가 자식의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가정과 반대로 자식은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자녀관 역시 변경된다.

2. 입소생활 적응경험의 구조

요양원에서의 일상생활에 대한 적응은 과거의 삶을 반추하면서 가치관을 검토하고, 현실을 직시하고, 과거로부터 지녀왔던 자기 자신과 시설에 대한 관점을 변경시켜 삶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형성하여 일상생활에서 만족 요인을 찾는 맥락에서 이루어진다. 자신의 삶에 대한 회상은 요양원 입소에 대하여 부여하는 의미에 근거하여 선택적으로 이루어지며, 그 반응 역시 입소의 의미

에 따라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이다. 초기의 변화에 대한 충격이 완화되면서 현실을 직시하게 되는데 이때 참여자의 시선은 과거의 극적인 삶에서 현실의 작은 문제들로, 특정 건강문제와 인체 부위에서 전체적인 자기와 주변 사람 특히 자녀와 자신을 돌보는 직원에게로 확대된다. 대부분 참여자는 자녀의 방문 등 가족과의 연계가 이어져서 긍정적인 생활 측면이 부각되나, 주변 입소자에 비해 자녀의 관심이 덜하고 지역사회에서보다 사람들과의 연계성이 떨어지는 참여자는 부정적인 생활 측면을 보게 된다. 인식의 전환과 새로운 가치를 구축하는 과정 역시 처음 두 과정에 근거하여 진행된다. 주변 상황에서 긍정적인 요소들을 발견하고, 신체적인 문제가 관리되고, 이로 인하여 과거에 할 수 없었던 중요한 활동이 가능해 지고 확대된다. 공동생활에 익숙해지면서 시설과 자기 자신에 가졌던 관점과 가정 그리고 입소의 의미가 변경된다. 가족 특히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관점도 변화되며 때로는 과거로부터 지켜 온 삶의 가치를 전환하기도 한다. 이러한 인식과 관점의 변화는 새로운 생활 세계와 삶의 가치를 구축하는 원동력이 되어 대인관계를 비롯한 현재의 활동에서 의미를 찾고 걱정 없는 삶에 대하여 만족하고, 지역사회 생활로의 재진입을 희망하기도 한다.

참여자들이 입소의 충격에서 벗어나 새로운 일상생활에 적응하는데 있어서 자신의 삶의 가치를 성찰하고 현실을 분석, 판단하여 현황에 맞게 변경하는 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언제든 필요할 때 보살피고 보호해 줄 수 있는 가족과 직원, 그리고 참여자를 집단의 어른으로 존중하고 일관성 있게 돌보는 환경 등 외적요인들도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렇게 적응한 참여자들에게 요양원에서의 생활은 사회와 가족으로부터 버려졌다거나 자기영역과 자율성을 상실하는 부정적인 삶이 아니라, 과거의 일상과는 다르지만 또 하나의 일상으로 자리를 잡는다.

IV. 논 의

본 연구에 참여한 요양원 거주 노인들이 입소생활에 적응하는 경험에서 3가지 핵심 구성요소를 발견하였다.

우선은 입소 초기의 생에 대한 선택적인 회상경험이다. 이 회상을 통해서 삶의 발자취와 생의 주요 가치를 검토한다. 생에 대한 검토는 전 생애와 생의 전반적인 측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부여한 입소의 의미에 근거하여 선택한 어느 특정 차원과 시기, 및 사건에 대한 것이다. Greenhalgh(2006)이 환자들에게 있어서 질병과 관련된 생의 검토는 보편적 시간(cosmetic time)이 아니라 사건시간(event time)에 입각한다고 지적했듯이, 노인에게 입소라는 생의 위기의 사건은 입소의 의미에 관련된 생활 사건들에 맞추어져 있는 사건시간이다. 이러한 결과가 간호 실무에 갖는 함의는 초기 입소과정에서 노인에게 의미 있는 생활사건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고, 이 선택적 측면들이 갖는 의미를 전환할 수 있도록 간호중재의 방향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여자가 부여한 입소의 의미는 또한 입소에 대한 반응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사회학적으로 노인주거시설에의 입소는 첫째로는 결혼 후 수십 년 동안 혈연관계로 인한 상호 정서적, 물질적 부양관계를 유지해오던 자녀로부터 그리고 사회의 기본생활 단위인 가구(household)로부터 일탈하는 일종의 반사회 규범적 일탈 행위이고, 둘째는 오랫동안 생활해오던 주거환경을 벗어나서 새로운 환경으로 이동하는 적응행동이고, 셋째는 자신의 의식주와 건강관리 등의 생명유지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삶의 영역의 많은 부분을 혈연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들과 단체(노인주거시설 직원)의 결정에 의존하는 것이다(Pamela, 1995).

그러나 본 연구에 참여한 노인들은 보다 미시적 차원에서 자신의 삶의 단면들과 연관하여 요양원 입소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였다. 참여자에게 요양원 입소는 독립적인 노후생활이라는 생의 목표의 실패, 이타적이고 대아적인 삶의 가치에 대한 부당한 보상, 절박한 건강문제 해결과 기본 일상생활 유지의 수단이다. 이렇듯 요양원 입소의 의미는 입소를 불가피하게 만든 문제 상황의 특성뿐 아니라 개인의 삶의 가치와 목표에 따라서 정해진다. 물론 이러한 의미, 특히 입소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 부여의 저변에는 기존의 학자들이 제시 했던 사회학적인 함의가 내포 되어있을 수 있다. 보다 가깝게는 우리 사회에 잔재하고 있는 노인들의 시설 입소에 대한 부정

적 시각과 시설에 부모를 모시는 것이 불효라고 여기는 비판적 시각(Yang, 2002)이 영향요인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참여자들에게는 무엇보다도 개인이 지켜 온 생활태도와 가치관이 크게 작용하였다. 물론 참여자2의 경우 입소의 원인이 시급하고도 심각한 건강문제이었고 입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나. 이 또한 노부모가 자녀들에게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평소의 생활신조에 근거한 선택이었다. 이는 노인의 입소 초기의 반응을 이해하고 예측함에 있어서 거시적 사회학적 영향요인보다는 개별적인 가치관과 생활사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더 적정함을 시사한다.

일반적으로 시설에 입소하는 노인들의 거주지 이전에 대한 반응으로 혼돈, 불안, 위축, 의존성, 상실감, 피로, 초조 등을 보이고 건강악화와 사망률 증가 등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Pamela, 1995; Seo & Rhee, 1995).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생의 목표 좌절과 사회의 불공평성에 대한 분노와 자기연민, 상실감, 무력감 등 부정적인 반응과 긴박한 문제가 해결된 것에 대한 안도감 등의 다소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반응들은 자신이 부여한 입소의 의미에 따라 부정적일 수도 있고 긍정적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입소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를 파악하고 이 의미의 전환을 위한 조력이 제공된다면 입소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참여자들의 입소생활 적응경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또 다른 요소는 ‘현실 인식의 증가’이다. 이러한 현실 인식은 참여자들이 요양원에서 생활하고 있음에도 가족, 특히 장남을 비롯한 아들과 큰 며느리와외 관계에 집중되어 있고, 직계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있어도 입소 중에 자녀와의 관계가 지속되지 않는 참여자들의 경우에만 직원이나 자신의 건강에 집중된다. 특히 참여자6과 같이 자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입소비용 등의 문제를 인식함으로써 처음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노인들에게 중요한 사회적 요구는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연장자로서의 지위 유지, 가족, 친지, 친구, 이웃과의 정서적인 접촉과 적절한 여가생활의 추구이다(Ebersole, Hess, & Luggen, 2004).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환경에서 고립된 생활을 하는 양로시설의 노인들은 친지, 동료들과의 원만한 상호관계를 통해 우호적인 가치관과 삶의 태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하지 못한다(Seo & Rhee, 1998). 한국 전통사회에서 노인은 가족의 수장이고 사회의 어른이었다. 집단중심의 사회에서 한 개인의 지위는 집단의 영역 내에 존재할 때 보장된다(Cho, 2005). 그러므로 노인에게 요양원 입소는 단순히 가족의 주거공간에서 벗어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그들은 사회적 지위의 근거를 상실한 것이다. 따라서 요양원이라는 가족외적 공간에서의 참여자들이 현재의 시간으로 인식을 전환할 때, 가족의 방문은 여타의 요양원 생활에 비해 물리적 시간상으로는 보잘 것없이 짧지만 그 의미는 매우 큰 것이다. 가족과 친족, 이웃의 방문으로 인해 참여자는 중요한 사회 내 존재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평소 지역사회에서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자 자의로 선택하여 혼자서 살아왔던 참여자들에게 조차 자녀 특히 우리사회 노인들의 정체성의 근간인 장남과 큰 며느리와의 관계의 지속과 확대는 노인의 입소생활 적응에서 크게 영향을 미치는 외적 요인이 된다. 여기서 이 결과가 간호 실무에 주는 함의는 가족이나 노인의 지역사회 자원을 연결해야 한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요양원을 비롯한 노인주거시설의 인적 환경이나 관리체계가 사회의 어른으로서의 노인의 지위를 존중하고 보존 할 수 있게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요양원 입소생활 적응경험의 세 번째 구성요소는 '요양원과 참여자 자신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새로운 삶의 가치 구축'이다. 직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건강문제가 완화되고 일상생활이 가능해 지며 주변 노인들과의 공동생활에 참여하면서 요양원 입소에 대한 과거의 부정적인 인식은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요양원이라는 곳의 의미 역시 확대된다. 바람직한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가정이 변화되고, 독립적인 생활에 대한 희망 역시 되살아난다. 이 적응경험은 안전하고 편리한 요양원 환경과 노인을 존중하는 요양원 직원의 긍정적인 돌봄 활동 등 외적인 요인과 자녀와 사회에 대한 기대를 수정하고, 만족할 만한 요인을 찾는 노인의 노력에 의한 결과이다.

Lee(2000)의 연구에서 시설 노인의 의미 구조를 불행

한 삶, 불가항력적이 삶, 원망스러운 삶, 외부 지향적인 삶, 스스로 위로하는 삶, 불만스러운 삶, 집착하는 삶, 회한의 삶, 부조화의 삶, 이성을 그리워하는 삶, 준비하는 삶, 소망을 지닌 삶 등으로 밝힌 바 있듯이 모든 노인들이 긍정적인 시각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삶을 이끌어 가지는 않는다. 요양원의 환경은 입소 생활에 비교적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있는 본 연구의 참여자들에게나 입소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노인들에게나 다르지 않다. 현재의 생활환경 속에서 긍정적인 면을 찾아내어 삶의 의미를 재구축할 수 있는 노력과 역량이 없다면 입소 노인의 삶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불행할 것이다. 실무자의 노력은 안전하고 안락하고 아름다운 외적 환경을 유지하는 일에서 나아가 노인의 내적 역량을 키우는 일까지 이르러야 할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Giorgi 현상학 방법을 통하여 요양원 입소노인의 적응경험의 구성요소와 구조를 밝혀냄으로써 변화된 생활환경에의 적응을 돕는 노인 간호중재 개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일개 광역시에 위치한 유료요양원에 입소한 65세 이상의 남자노인 1명, 여자노인 5명으로 총 6명의 노인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2006년 3월부터 9월까지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Giorgi의 현상학적 분석 절차에 따라 분석하였다.

참여자의 입소생활 적응경험의 핵심 구성요소를 '입소의 의미에 근거한 삶의 발자취에 대한 선택적 회상', '현실 삶에 대한 인식의 증가와 현실 문제의 직시', '자신과 삶, 요양원 및 입소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새로운 가치의 구축'으로 축약하였다. 이 핵심 구성요소는 입소생활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조화 하였다.

입소의 의미 파악을 거시적 사회학적 요인보다는 개인의 생활사와 삶의 주요 가치를 통해서 파악해야 한다는 점, 가족이 노인에게 제공하는 의미를 요양원 실무에서 실현해야 한다는 점, 객관적 환경의 개선뿐 아니라 노인의 내적 역량을 개선도 중요하다는 점 등을 밝혔다. 이것이 이 연구결과가 실무에 갖는 의의라 하

겠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연구의 초점을 노인들이 입소에 부여하는 의미를 보다 다차원적으로, 그리고 심층적으로 탐구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입소의 의미가 초기 입소에 대한 반응뿐 아니라 입소생활 적응 경험 전 과정에서 근간을 이루기 때문이다.
2. 노인 주거시설 입소 시점에서부터 장기간에 걸친 참여 관찰을 통해서 일상생활의 변화과정을 탐구할 필요가 있다. 이는 본 연구가 참여자들의 경험에 대한 진술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중요한 경험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는 적합하나 실제의 변화과정을 탐색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점을 보충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Aneshensel, C. S., Pearlin, L. I., & Mullan, J. T. (1995). *Profiles in caregiving: The unexpected career*. Seoul: Academic Press.
- Campbell, A., Converse, P. E., & Rodgers, W. L. (1976).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perception, evaluation, and satisfaction*. New York: Sage.
- Cho, M. O. (2005). The meaning of death as experienced by elderly women of a Korean clan. *Quali Health Res*, 15(1), 5-18.
- Choi, O. Y. (2002). *A Study on aged inpatients' decision-making factors to utilize paid sanatoriums for the aged*.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 Ebersole, P., Hess, P., & Luggen, A. S. (2004). *Toward healthy aging: Human need and nursing response(6th ed)*. ST. Louis: Mosby.
- Giorgi, A. (2003).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Workshop on the Giorgi's phenomenological method. Seoul; Qualitative Research Center.
- Giorgi, A. (2004).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Advanced workshop on the descriptive phenomenological method. Seoul; Qualitative Research Center.
- Greenhalgh, T. (2006). *What seems to be the trouble: Stories in illness and healthcare*. Oxford: Radcliffe Publishing.
-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5). *Population and Housing: Statistics for aged*. <http://www.nso.go.kr>
-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5). *Population projection for Korea*. Korea Statistical Year Book. <http://www.nso.go.kr>
- Korea Institute of Health and Social Welfare (2001). *Projection for long-term care for the aged*.
- Lee, G. E. (2000). *Life of the institutionalized elderl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6). *Health and welfare for aged*. <http://www.mohw.go.kr>
- Pamela, S. (1995). Relocation stress syndrome: A comprehensive plan for long-term care admissions. *Geriatric Nurs*, 16(3), 108-112.
- Park, O. J. & So, H. S. (2004). Model development of an elderly health promotion center: The effect of a social support Program at a community health center. *J Korean Acad Nurs*, 34(5), 781-790.
- Seo, S. H. & Rhee, K. H. (1998). The effect of residential relocation for the life of the elderly. *J Korean Gerontol Soc*, 16(1), 69-82.
- Yang, S. H. (2002). *A study to identify the attributes of nursing homes for elderly in Korea*.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 Yim, S. J. & Park, O. J. (2003). A study on activities of daily living, physical health, and understanding of nursing home in hospitalized elderly patients. *J Korean Gerontol Nurs*, 5(2), 138-146.